

# 세계를 향한 을(乙)의 리더십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 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2024년 파리올림픽은 한국 국민에게 ‘파리의 기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21개 종목에서 출전한 테극전사들은 금메달 13개를 따냈다(‘겁 없는’ Z세대의 반전 올림픽 ... 팀 코리아 금빛 세대 교체, 매일경제, 2024. 8. 12).

특히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이 2024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단체전 10연패, 남자 단체전 3연패의 대업을 달성했다. 압도적 세계 1위 대한민국 양궁을 만들어낸 요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다. 대표팀에 뽑히는 것은 올림픽 금메달 따기보다 어려운 일로 정평이 나 있다. 선수 개개인은 6개월간 총 5차례에 걸친 선발전에서 활 4000발을 쏘며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대회가 열리는 해에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느냐가 유일한 선발 기준이다. 경력은 물론이고 학연과 지연, 협회 고위직과의 친소관계 따위는 발을 붙일 수 없다.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으니 메달리스트조차 안일해질 수 없고,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선수들도 희망을 가지고 훈련에 매진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회 임박까지 격렬하게 이어지는 ‘투명한 선발전’을 고수했고, 그 덕분에 아무 잡음 없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모두가 수궁하는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다(인맥 아닌 공정 ... 그 뻔한 성공 방정식, 중앙일보, 2024. 8. 1)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대한양궁협회이고, 그 뒤엔 양궁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온 정 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있다.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에 이어 2005년 양궁협회장에 취임한 정 회장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철저히 지켜오고 있다. ‘협회 운영은 투명하게, 선수 선발은 공정하게 해달라’는 원칙만 주문할 뿐이다. 경기장까지 동선을 직접 걸어보며 체크해 숙소를 정한다든지, 보양 특식을 공수한다든지, 전용 숙소와 전용 훈련장을 따로 마련하는 식의,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화도 많다. 통 크먼서도 세심하고, 솔선하지만 나서지 않는 그의 ‘을(乙)의 리더십’은 경기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잘 드러난다. 정 회장은 “선수들이 워낙 잘해서 물어가는 것 같다. 제가 운이 좋은 것 같다”며 “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라고 했다(40년 왕좌와 40년 굴욕, 매일경제. 2024.8.2).

한국 양궁은 철저한 시스템에 의해 대표 선수를 선발한다. 국가대표 선발전과 평가전을 모두 통과해야 올림픽에 나설 최종 3인에 들어갈 수 있다. 이를 통과하지 못한 안산, 강채영, 장민희 등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은 파리에 올 수 없었다. 혼성전 우승을 차지한 후 일본 기자가 한국 양궁이 강한 이유를 물었는데 김우진은 “한국 양궁은 체계가 확실하게 잡혀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실업까지 모든 선수가 운동하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공정한 대한양궁 협회가 있기에 모든 선수가 부정 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한다.”라고 명료하게 말했다.

이 시스템을 확립한 인물이 바로 협회 정의선 회장이다. 정 회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를 표방하며 한국 양궁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지난해 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그는 “대한양궁 협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혁신에 앞장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양궁이 스포츠를 넘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구성원마다 정 회장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한국 양궁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늠할 수 있다. 김우진은 “정의선 회장님께서 양궁에 많은 관심을 두고 지원하신다. 늘 어떻게 해야 정상을 지킬 수 있을지에 관해 고민하고 만들어가신다. 그 덕분에 한국 양궁은 지속해서 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양창훈 감독도 “협회와 정의선 회장님이 진짜 세밀하게 선수들에게 지원해주신다. 그런 것이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정말 열심히 한다”라고 정 회장의 지원이 한국 양궁을 강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선 회장님 덕분에” 절대 빠지지 않는 그 이름…다시 한번 증명한 한국 양궁의 코어, 스포츠서울, 2024. 8. 4.)

정 회장은 이번 대회에서도 양궁 경기가 열리는 레쟁발리드를 찾아 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힘을 보탤다. 회장은 주로 육만 먹는 한국 체육계에서 정 회장은 전무후무하게 긍정적인 평가만 받는 리더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모습이다.

스포츠계는 한국 양궁의 ‘장기 집권’ 배경으로 40년째 양궁협회를 돕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차별화된 지원’을 꼽는다. 거액을 쾌척하는 것으로 끝내는 일부 기업과 달리 선수 및 코치들과의 소통을 통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안을 찾아 끝까지 지원하는 방식이어서다. ‘심박수 관리’가 메달 색깔을 바꾸는 핵심 변수란 것을 파악한 뒤 얼굴 색상 변화를 카메라로 포착해 심박수를 측정하는 장치를 만들어준 게 대표적인 예다. ‘공정성과 투명성만 볼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현대차그룹의 지원 원칙도 한국 양궁을 단단하게 한 비결이다. 덕분에 양궁계에서는 파벌 싸움은 물론 불합리한 관행, 불공정한 선수 발탁 문제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눈앞의 올림픽에만 매달리지 않고, 학교 체육수업에 양궁을 포함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저변 확대에 나선 것도 현대차의 남다른 지원 방식으로 꼽힌다.

현대차그룹이 이번 파리올림픽을 위해 충북 진천 선수촌에 프랑스 파리의 양궁 경기장인 앙발리드 양궁장과 똑같은 시설을 조성해준 게 대표적인 예다. 양궁이 당일 컨디션과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멘탈 스포츠’라는 점을 감안해 선수들이 미리 경기장 특성을 몸에 익히며 체계적으로 연습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멘탈 관리를 위해 스포츠심리 전문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파리올림픽에 동행시켰다.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회사의 기술 역량을 총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 현대차는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개발기간 1년을 들여 ‘개인 훈련용 슈팅 로봇’따로 만들었다. 양궁장의 바람을 읽고 스스로 활을 쏘는 로봇이다. 현대차가 만든 슈팅로봇은 10점 만점에 평균 9.65점을 쏘 정도로 고수다. 만약 대표팀 선수들이 실전과 같은 맹훈련을 하고 싶다면 슈팅로봇을 상대하면 된다. 현대차가 개발한 첨단원단을 적용한 ‘복사 냉각모자’를 선수들에게 제공했다. 해당 모자는 직사광선의 반사를 극대화해 주변 환경에 비해 온도를 현저히 낮추는 효과가 있다. 현대차 글로벌전략사업본부 팀장은 “비용보다 오직 선수들의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해 훈련도구를 제작한다”고 말했다(보양식 대접부터 원정 응원까지..선수들 아버지같이 챙겨, 동아일보, 2024.8. 10.). 지원 대상을 ‘메달권 선수’에게만 국한하지 않는 것도 현대차의 차별화된 후원 정책이다. 국내 최대 규모 양궁대회인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를 신설했고, 이와 동시에 생활체육대회 및 동호인 대회를 창설했다. 학교 체육 수업에 양궁을 포함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일부 지역 중학교에서 시작해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이나 체육 수업에서 양궁을 가르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여자단체전 10연패, 남자 단체전 3연패의 위업을 이룬 한국 양궁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경쟁력 저하로 몸살을 앓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귀감으로 삼을 모범사례이다. 철저한 공정 경쟁을 통한 선수의 선발전칙, 양궁협회 회장사인 현대차그룹의 후원이 빛을 발한 결과이다(소수 정예로 최상의 성과를 거둔 파리 올림픽, 중앙일보, 2024. 8. 10.).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8월 9일 (금)	8월 12일 (월)	8월 13일 (화)	8월 14일 (수)
미	달	러	(USD)	1377.70	1369.40	1367.70	1370.30
일	본	엔	(JPY)	934.32	931.09	929.08	933.38
영	국	파운	(GBP)	1755.81	1746.33	1746.21	1763.10
캐	나	다달	(CAD)	1002.84	996.91	995.34	999.74
홍	콩	달	(HKD)	176.76	175.61	175.52	175.93
중	국	원	(CNH)	191.95	191.20	190.39	190.80
유	로	화	(EUR)	1504.24	1494.63	1495.24	1506.99
호	주	달	(AUD)	907.63	900.31	900.97	909.33
싱	가	폴	(SGD)	1038.99	1034.13	1032.77	1040.47
말	레	이	(MYR)	307.87	309.64	306.93	307.90